

일본 수출규제/한일 관계 동향(2020.7.27.~2020.8.7.)

1. WTO 제소 관련

□ WTO는 7월 29일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출규제 문제를 심의할 패널을 설치¹⁾

- 6월 29일에 이어 한국 정부는 또다시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다룰 패널을 설치하도록 WTO에 요청함.

- 6월 29일 회의에서는 일본의 반대로 패널이 설치되지 않음.

* 일본 정부는 ① 수출규제는 WTO 회원국들에게 인정된 예외 조항(군사 전용이 되는 것을 방지)에 해당되는 장치라는 점, ② 용도가 민간용임이 확인된 수출 건은 허가하고 있다는 점, ③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패널 설치에 반대함.

- 7월 29일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을 수용함.

- 한편 닷케이에 따르면, WTO 내에서는 안보상 이유로 무역제한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쉽게 용인한다면, 불필요한 무역제한조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들도 존재²⁾

□ 일본 정부는 패널 설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, 향후 양국 간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한편, 국제분쟁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

- 카지야마(梶山)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“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대화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한 수출관리정책대화 내의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” 이라면서 “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책대화의 개최는 곤란할 것” 이라고 전망함.³⁾

1) 「日韓紛争、長期化も、輸出管理、WTOがパネル設置。」, 「日本経済新聞」, (2020. 7. 30) 및 「日韓輸出紛争、パネル設置 決着までは数年も WTO決定」, 「朝日新聞」, (2020. 7. 30).

2) 각주 1의 닷케이

3) 「梶山経産相「日韓の政策対話 開催困難に」WTOの小委員会設置で」 「NHK NEWS WEB」, (2020. 7. 31) 및 経済産業省(2020. 7. 31), 「梶山経済産業大臣の閣議後記者会見の概要」, 홈페이지: <https://www.meti.go.jp/speeches/kaiken/2020/20200731001.html> (접속일: 2020. 8.8.)

- 한편 외무성은 무역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7월 31일 ‘경제분쟁처리과’를 신설함.⁴⁾
- NHK는 이번 외무성의 조직개편이 수출규제와 관련된 한일 간 대립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함.

2. 일본기업 자산매각 관련

- 8월 4일 강제징용 관련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 압류결정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,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고 발표
 - 8월 4일 0시부터 일본제철(구 신일철주금)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의 압류 명령결정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.⁵⁾
 - 한편 일본제철은 같은 날(8월 4일) 공시 송달에 불복, 즉시상고를 할 것이라고 발표함.⁶⁾
 - 일본제철은 “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”고 하면서, “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적 협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겠다”는 담화를 발표함.
 - 즉시상고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(8월 4일)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자산 압류가 확정됨.⁷⁾
- 일본 정부는 △ 비자발급 제한 △ 주한 일본대사 귀국 △ 관세 인상 △ 금융 제재 △ 수출규제 강화 등 일련의 대항조치를 검토중
 - 스가(菅) 관방장관은 8월 4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, “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”고 강조함.⁸⁾

4) 「外務省 組織改正を発表 貿易めぐる国際紛争対応強化へ」, 「NHK NEWS WEB」, (2020. 7. 31)

5) 「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」, 「연합뉴스」

6) 「徴用工訴訟、日本製鉄が即時抗告へ」, 「朝日新聞」, (2020. 8. 4) 및 「NEWSFLASH：徴用工訴訟、差し押さえ公示送達発効」, 「毎日新聞」, (2020. 8. 4) 및 「日鉄が即時抗告へ、元徴用工訴訟、資産差し押さえに、売却命令は秋以降か。」, (2020. 8. 5) 및 「徴用工訴訟 資産現金化、年末か 日本製鉄、即時抗告へ」, 「産経新聞」, (2020. 8. 5)

7) 「元徴用工問題で即時抗告方針表明-日本製鉄」, 「静岡新聞」, (2020. 8. 5).

8) 「元徴用工訴訟「あらゆる選択肢」。」, 「日本経済新聞」, (2020. 8. 4).

- 아사히신문에 따르면,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 한국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비자발급 정지,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, 금융제재(송금정지 등)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.⁹⁾
- 스가 관방장관은 “일련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. 담당 부서에서 책임자를 결정하여 각 (강제징용 관련) 기업을 담당하게 하는 등 노력을 집약하고 있다”라고 8월 1일 밝힘.
- * 다만 ① 해외에 있는 피고의 자산 압류는 전례가 없다는 점, ② 일본제철이 압류당한 자산은 비상장주식으로서 팔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실제 현금화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.
- 한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금화의 대항조치로서 일본 내에 있는 한국 측 자산의 압류, 수입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검토중이라고 보도함.¹⁰⁾
-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결정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간주하고 있음. 산케이신문은 국제법에서는 상대국이 먼저 위법행위를 할 경우, 이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비군사적인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보도함.
- 마이니치 신문은 외무성, 재무성, 경제산업성 등이 2019년말 이후 약 40개 정도 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, 수상관저를 중심으로 검토해 왔다고 보도함.¹¹⁾
- *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본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, 한국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취하기 힘들다는 점, 검토중인 대항조치 가운데서는 실효성이 낮은 것들도 포함된 점 등 대항조치의 한계를 지적하는 견해들도 존재함.
- 닛케이는 8월 5일 일본 정부가 일본제철 자산의 현금화가 될 경우 수출 규제 강화, 국제사법재판소 및 세계은행 산하의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 제소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, 일본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함.¹²⁾

9) 「韓国、年内に「現金化」も 徴用工訴訟、日本製鉄の資産差し押さえ」, 「朝日新聞」, (2020. 8. 4).

10) 「日本 対抗措置の構え 関税引き上げなど 関係悪化は望まず」, 「産経新聞」, (2020. 8. 4).

11) 「焦点：日韓、高まる緊張 元徴用工判決、差し押さえ効力」, 「毎日新聞」, (2020. 8. 5).

12) 「日鉄が即時抗告へ、元徴用工訴訟、資産差し押さえに、売却命令は秋以降か。」, 「日本経済新聞」, (2020. 8.5).

- 한편 일본 여당 내 일부 그룹(보수단결의 모임)은 “일본제철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경우, 즉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실효성이 높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”는 결의를 채택, 8월 4일 수상관저에 제출함.¹³⁾

3.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(GSOMIA) 종료 관련

□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“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” 라고 한 것을 보도¹⁴⁾

- 일본 공영방송 NHK는 “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경우 매년 8월 하순까지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, 한국 외교부는 “한국은 언제든 협정을 종료할 수 있으며, 1년마다 연장한다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”고 주장했다”라고 8월 4일 보도함.

- 한국 정부는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, 11월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동 종료 통보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한 바 있음.

- 한편 닛케이는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40%대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면서, 지소미아 종료 등 반일 카드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함.¹⁵⁾

□ 한편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가 미국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¹⁶⁾

- 미국 국무부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가 가능하다는 한국 외교부의 입장과 관련, 지소미아는 미국의 안보 및 지역 안정에 중요하며,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문제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.

13) 「自民・保守の会「現金化なら韓国に制裁を」」, 「産経新聞」, (2020. 8. 4). 및 「資産売却なら対韓制裁を徴用工問題、自民保守」, 「静岡新聞」, (2020. 8. 4).

14) 「韓国「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=GSOMIA いつでも終了できる」」, 「NHK NEWS WEB」, (2020. 8. 4).

15) 「4日以降、韓国地裁、資産売却命令も一元徴用工訴訟、迫る「現金化」(NewsForecast)」, 「日本経済新聞」, (2020. 8. 2).

16) 「美 국무부 "지소미아, 미국 안보에도 중요"」, 「YTN」, (2020. 8. 7)